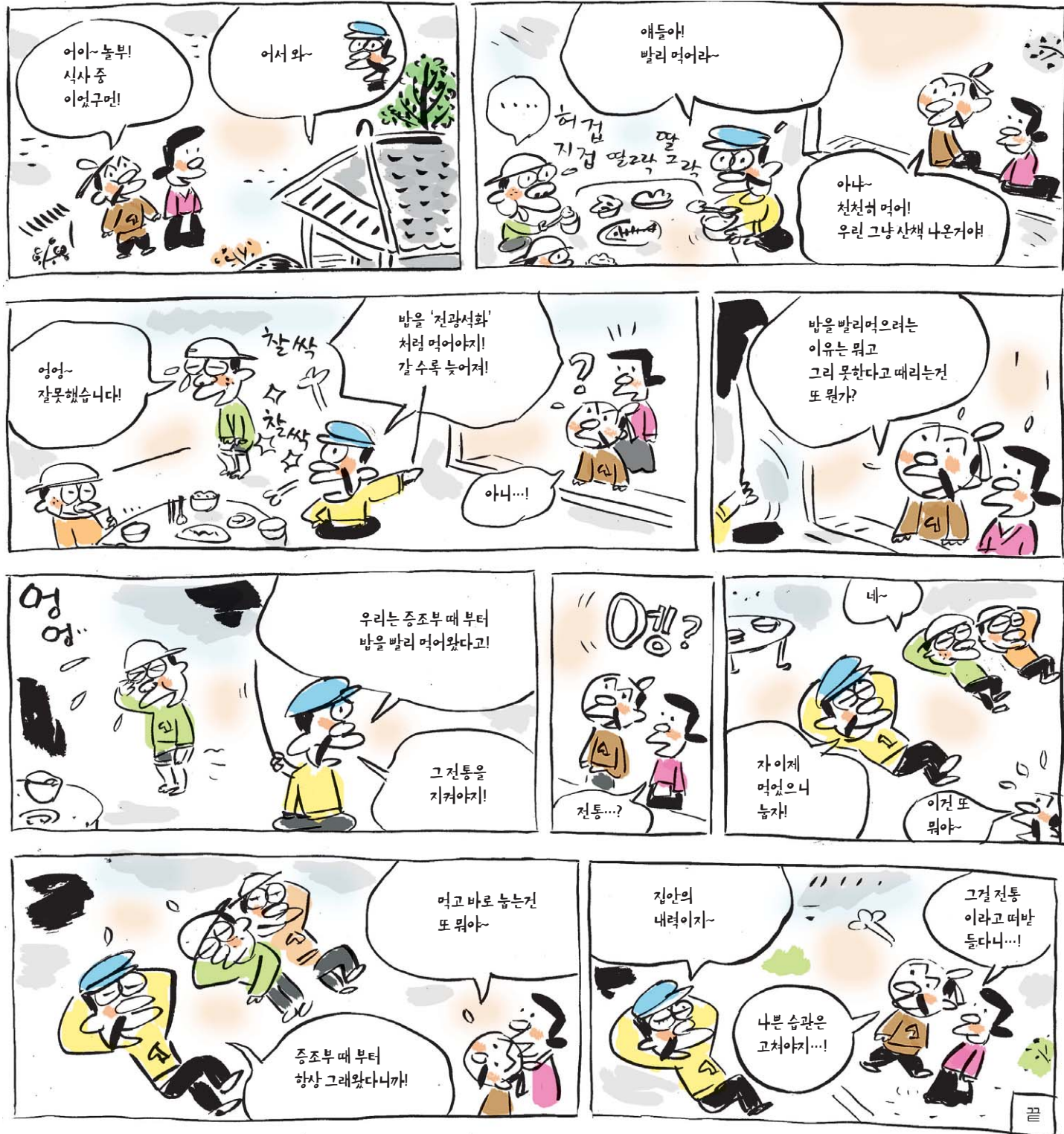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4>

구성 : 김흥민



음식을 급히 먹는 남편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사람이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음식을 차리지 남편은 급히 먹었다. 아내의 이상히 여겨 그 남편에게 말했다. "여기는 도적도 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이처럼 바쁘게 드십니까?" 남편은 대답했다. "비밀이라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소." 아내가 간절히 묻자 남편은 "우리 조부 때부터 항상 음식을 빨리 먹는 법을 지켜 왔소. 나도 지금 그것을 본받기 위해 빨리 먹는 것이요"라고 답했다. 세상의 범부들도 그와 같다. 바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해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온갖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빨리 먹는 습관을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일행 스님이 달력을 만들다 일행조력(一行造曆)



고려판화박물관 소장 <신해(神海)의 일행조력(一行造曆)> 판화(半幅)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스님인 일행 선사가 국청사에서 산가지로 산법(算法)을 전수 받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일행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해 경사(經史)와 역사(歷史), 음양오행의 학문에 정통했다. 출가해 보적 선사(普寂禪師)에게 <선요(禪要)>를 배웠고, 선무의로부터 밀교를 전수받고 그를 도와 <대일경(大日經)>을 번역했으며, 선무의의 지도를 받으면서 <대일경소(大日經疏)>(20권)를 완성시켰다. 721년에는 이순풍(李淳風)이 만든 인덕력(麟德曆)에 의한 일식의 예보가 자주 틀리게 나오자 당나라 현종은 일행에게 신력(新曆)을 편찬하도록 명했다. 일행은 먼저 양력(梁令)과 협력해 황도유(黃道遊儀)를 만들어 태양·달·5행성의 운행 및 항성의 위치를 측정했으며, 수력으로 움직이는 천구(天球儀)도 제작했다. 723년부터는 남궁설(南宮說)과 더불어 대규모의 자오선 측정을 실시해 1도가 당나라의 척도로 351리 80보(123.7km)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724년에 역법(曆法) 개편작업을 시작해 역법에 역(易)의 형이상학을 결부시킨 <대연력(大衍曆)>(52권)을 완성시켰다. 이 역법에 의해 계산된 태음력은 그의 사후인 729년부터 전국에 배포됐다. 일행은 일대의 영재로서 존경을 받았으나 45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일행은 위대한 밀교 고승이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오히려 천문역법의 과학자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시호는 대혜 선사(大慧禪師)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현종이 일행의 명성을 듣고 조서를 내려 내전에 들어오게 해 그의 재앙과 복덕

을 점치게 했더니 그는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듯 말해 나라에 보임이 많았다. 형화(邢和璞)가 윤암에게 말했다. "일행 스님은 진실로 성인이다. 한나라 때 낙양성 아래에서 공(閻)씨가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르기까지 '800년 후가 되면 아마도 하루의 차이가 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한 성인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 결정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기약한 해가 끝났다. 일행 스님이 그해에 대연력을 만들어 그 차이와 틀리는 곳을 바로잡았으니 그때 낙양성 아래 공씨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말이였다." 일행 스님과 같이 조사들 중에는 학문이나, 과학 등에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많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시가 있는 도량

백결선생

옥상의 방수액이 날아가 버렸는가
천장에서 느닷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네
나 어이 계면적적으로 옛 백결이 되는 건가

양은 냄비 놓은 곳엔 현악기의 뒹뚱 소리
신문지를 깔은 데엔 타악기의 퍽퍽 소리
마음을 비우지 못한 나더러 들으라

-구중서/시조집 <불면의 좋은 시간>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불멸조는 미륵불의 신장불로서 태양속에 사는 삼족오(三足鳥)의 원력과 삼신일체사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 지(地), 인(人)의 원력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갈날이 액운액살을 일시로 소멸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이 있는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의상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높이 22cm×폭 26cm

이 불멸조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 다니는 영혼들의 액운, 액살, 잡귀 등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 건강,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사업장에는 사업번창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과 원력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입니다.

(현재 많은 불자들이 영험하다고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신기하다고 함)

미륵부처님의 인중에 들어가는 보석을 안착하여 가정의 앞길을 밝혀주는 두배의 영험력으로 최고의 행운을 열어주는 길상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 Quartz : 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으며 순금으로 도금하여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 불(護身佛)입니다. 보시금: 700,000만원 보시금은 미륵전에 전액 보시되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 핸드폰 010-8674-5351 031-898-5666
계좌번호 : 우체국 100941-02-294031 (예금주: 엠 흥수)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심이란 억만간의 항성으로 가는 것'이며 항성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원미리야오 신국판 464쪽 W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출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생명 에너지를 궁극히 지키면
악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침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타 배송비 2500원 (5000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민토불이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